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및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

김 경 은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부모참여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모참여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시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3세에 해당하는 남녀 유아를 둔 부모 중 저소득층 어머니인 경우만을 포함하였으며, 3세 유아를 둔 어머니 146명과 그들의 자녀 146명, 총 292명이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유아의 양육, 교육,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높고, 유아의 인지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발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모참여를 매개로하여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인지발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양육, 교육, 여가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높은 참여도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자녀의 인지발달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히 가용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모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혹은 정책적 부분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심리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부모참여, 유아의 인지능력, 매개모형검증

* 본 연구는 2011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011년 11월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leejay48@chol.net)

I. 서 론

유아기에는 인지적 성장과 함께 언어발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Piaget(1970)에 따르면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기는 전조작기로, 유아는 감각운동기에 속하는 영아들에 비해 단지 양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 유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인지적 성장을 토대로 가속화 되는 언어 능력은 상징적 표현의 수단이 된다(Goldfield & Reznick, 1990). 유아들이 즐겨하는 가장놀이나 상상놀이는 유아가 상징적 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이다. 유아들은 이 시기동안 수천 개의 단어를 습득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y, 1978).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유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자신의 독특한 견해, 감정, 태도를 나타내는 능력도 증가된다.

이 시기 유아는 작은 수를 셀 수 있고, 기본적인 셈을 이해할 수 있다(Geary, 2006). 그리고 몇몇 유아는 특정 영역, 공룡이나 지리와 같은 영역에서 전문가이기도 하다(Chi & Koeske, 1983). 또한 식물과 동물은 성장하지만, 자동차와 구름은 성장하기 못한다는 것을 안다(Gelman & Kalish, 2006). 하지만 유아기의 인지능력은 ‘자아중심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듯이, 아동기의 인지능력에 비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유아기의 사고는

아주 놀랄만한 성취와 결핍 간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Gelman, 2006).

유아기의 개별 영역의 발달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발달의 지연이 일어나면 다른 발달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의 인지발달은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발달, 이후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전반적인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lin & Rutter, 1987; Najman, Aird, Bor, O’Callaghan, Williams, Shuttlewood, 2004). 개인의 인지능력과 발달은 개인이 학습하고 적응하며 자신의 환경 속에서 기회를 탐색해나가는 능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Najman, et al., 2004). 인지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결과 유아의 인지능력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이며, 시간이 지나도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obert & Emily, 2001). 이와 유사하게 유아가 인지발달의 지연이나 결핍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거나 교사,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김연 외, 2006). 이처럼 유아기 인지발달은 유아기의 다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유아의 인지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 특히 어머니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Vygostky에 따르면 발달이란 아동 혼자만의 여행이 아

나라 좀 더 유능한 파트너와 함께 여행할 때 가장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Kail, 2007). Vygotsky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이론가들은 인지발달의 사회적 본질을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설명하는데, 유아와 성인은 특정한 활동이나 혹은 과제에 함께 참여할 때 서로의 목표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과 유능한 성인 간의 상호이해 덕분에 아동은 보다 높은 기술을 가진 타인과의 구조화된 활동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안내된 참여(guided participation)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아동은 새롭게 경험하는 지식과 기술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통합하게 된다(Rogoff, 2003). 이처럼 좀 더 유능한 부모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인지발달은 촉진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특성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에의 참여는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양육의 질은 유아의 언어발달, 문해, 인지,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nstein, 2002; Lugo-Gil & Tamis-LeMonda, 2008)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만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혹은 조언, 도움 혹은 행동으로, 이는 수혜자에게 긍정적인 정서적·행동적 효과를 미친다(Gottlieb, 1983). 장애아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남편이나 친구의 지지는 가정기능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nowdon, Cameron, & Dunham, 1994).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양

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춘애, 박성연, 1998). 이와 유사하게 다문화가족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김경은, 2009).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혹은 경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사회성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가용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의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의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제안될 수 있다. Epstein(1995)에 따르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자녀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여가 및 놀이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Fantuzzo, McWayne, Perry 와 Childs (2004) 역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의 부모참여를 양육행동, 놀이행동, 학습행동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의 부모참여는 크게 양육활동, 교육활동,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 교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모참여라고 정의한다.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 부모참여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김경숙, 공진희, 이민경, 2007; Mcwayne, Campos, & Owsianik, 2008).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Barnard, 2004; Castro, Bryant, Peisner-Feinberg, & Skinner, 2004).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의 참여는 유아의 학업성취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 Waanders, Mendez, & Downer, 2007). 부모참여 중 양육참여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어머니의 가족 자원, 양육의 질, 아동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자원과 양육의 질은 12, 24, 36개월에 측정한 유아의 인지수행에 영향을 미쳤고, 양육의 질은 가족자원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Lugo-Gil & Tamis-LeMonda, 2008).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유아의 인지발달은 이후의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양육을 제공하게 되면 유아의 인지발달은 향상될 수 있고 유아의 인지능력 향상은 역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유아기 인지발달은 유아의 근접 혹은 거시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근접환경으로서 부모와의 놀이 및 게임 등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와 게임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분류, 지각, 학습 등과 같은 인지발달을 촉진시킨다(Santos, Santos, Bastos, Assis, Prado,

Barreto, 2008). 또한 어머니와 토들러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지지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charasin, Barnard, & Spieker, 2003). 이처럼 어머니가 유아를 지지해주고, 유아의 양육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인지발달은 향상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력, 연령, 어머니의 취업 유무 등과 같은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들, 부모-유아와의 상호작용 횟수, 부모효능감과 같은 가족 자원 변인들, 지역사회 풍토, 이웃관계,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망(social network)이 부모참여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숙 외, 2007; 이진화, 임원신, 김경은, 2010; Fantuzzo, Tighe, & Childs, 2000; Waander et al., 2007; Yamamoto, Holloway, & Suzuki, 2006).

사회적 지지와 부모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흑인계 미국가정의 아버지의 경우, 교회,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과 관련이 있고(Taylor, Chatters, Tucker, & Lewis, 1990)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아버지의 유아교육참여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hmeduzzaman & Roopnarine, 1992).

이에 부모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제한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를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재정적, 인적,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Klebanov, Brooks-Gunn, & Duncan, 1994)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양육행동, 유아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부모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및 교육에의 참여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ander와 동료들(2007)에 따르면,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모의 유아 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들이 성공적으로 발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생애주기를 볼 때, 유아기는 기초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정 중심의 부모참여 활동은 유아기 자녀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부모참여는 유아의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참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컨대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유아교육참여도는 유아의 인지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유아교육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유아 교육참여도가 유아의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시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3세아와 그들의 어머니 각각 1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3세아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3세는 영아기에서 벗어나 유아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Piaget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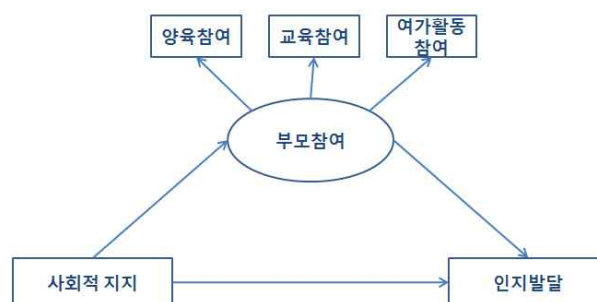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명부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저소득층가구의 표본추출은 전체 표본의 40%에 대하여 16개 시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포 현황을 반영하여 표본을 배분한 후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포 현황에 준하여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읍면동 내에서 2~3개의 통반리를 표본지점으로 선정하고 각 표본지점에서는 8~12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자료는 얻어진 자료에 대하여 유효표본과 모집단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표본추출률을 계산하는 일종의 사후층화방법을 적용, 가중치를 계산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연구대상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83명(58.9%), 사별은 14명(9.9%), 이혼은 32명(22.7%), 별거는 6명(4.3%), 미혼은 6명(4.3%)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무학의 경우 11명(7.8%), 초졸은 14명(9.9%), 중졸은 17명(12.1%), 고졸은 71명(50.4%), 전문대졸은 10명(7.1%), 대졸이상은 18명(12.7%)였다.

2. 측정도구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지지, 정서적지지, 일상생활지지, 교육적지지 등의 4가지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

은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6이다.

부모참여

부모참여는 크게 양육활동 참여도, 여가활동 참여도, 교육활동참여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활동참여도는 부모가 양육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장보기나 쇼핑’, ‘목욕시키거나 기저귀갈기’, ‘장난감 놀이 나 신체놀이’ 등과 같이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인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한 적 없음’(1점)에서 ‘거의 매일’(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다.

여가활동참여도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영화나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운동 및 나들이’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한 달에 3~4회 이상’(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3이다.

교육활동참여도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당신은 자녀와 상상놀이(소꿉놀이, 전쟁놀이, 병원놀이, 학

교놀이 등)를 합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 주거나 같이 노래를 부릅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십니까?’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활동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4이다.

인지능력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아의 기초적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일상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전략을 복합적으로 시도한다(예: 문이 열리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려 보는 동시에 문을 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기억하라고 하면 그것을 쳐다보고 있거나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등 잘 외우기 위한 행동을 한다.’, ‘1에서 10까지 수 이름을 알고 센다.’, ‘때와 장소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알고 준수한다(예: 유치원이나 식당이나 집에서 다른 행동이 요구됨을 안다)’ 등의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2이다.

3. 자료분석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유아교육참여도와 유아의 인지능력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유아교육참여도, 인지능력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및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참여의 하위요인인 양육참여($r=.29, p<.001$), 여가참여($r=.26, p<.001$), 교육참여($r=.19, p<.001$)와 정적인 상관을 갖고, 유아의 인지발달과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18, p<.001$). 즉,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녀와의 양육, 여가, 교육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참여, 양육참여, 여가참여는 유아의 인지발달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44, r=.39, r=.29, p<.001$). 즉, 어머니가 자녀와의 교육놀이, 양육,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인지발달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

	사회적지지	양육참여	교육참여	여가참여	인지발달
사회적 지지	1	.29***	.19***	.26***	.18***
양육참여		1	.63***	.61***	.39***
교육참여			1	.55***	.44***
여가참여				1	.29***

*** $p < .001$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어머니의 부모참여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서 유아의 인지발달로의 직접 경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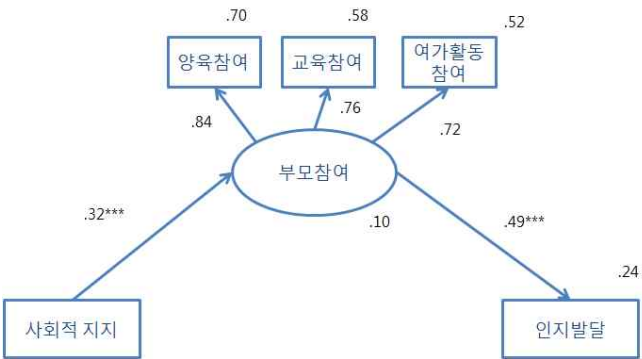


그림 2. 기본모형(완전매개모형)

표 2. 기본모형의 경로계수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사회적지지 → 부모참여	.31***	.32***	.09	3.61
부모참여 → 양육참여	1.00	.84		
부모참여 → 교육참여	.78***	.76***	.09	8.59
부모참여 → 여가참여	.86***	.72***	.11	8.19
부모참여 → 인지발달	.15***	.49***	.03	5.52

*** $p < .001$

추가하여 부모참여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3 참조). χ^2 검증을 이용해 연구모형과 기본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가 부모참여를 통해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표 2 참조). 즉,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어머니의 부모참여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정적

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기본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5}=5.7$, $p=.32$, TLI=.99, CFI=.99, RMSEA=.03).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어머니의 사회적지에서 유아의 인지발달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부모참여를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게 나타났다($\chi^2_{df=4}=5.6$, $p=.28$, TLI=.97, CFI=.99, RMSEA=.05). 부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사회적 지지에서 인지발달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3, 표 3 참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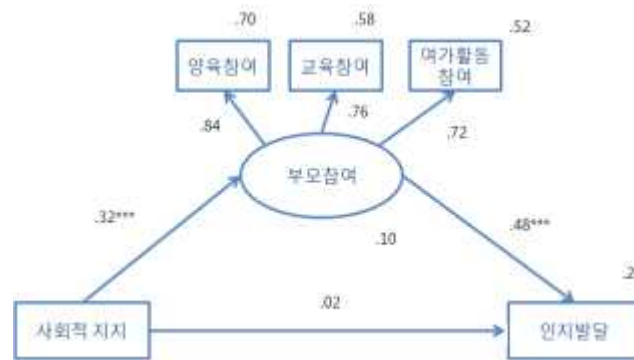


그림 3.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사회적지지 → 부모참여	.31***	.32***	.09	3.56
부모참여 → 양육참여	1.00	.84		
부모참여 → 교육참여	.78***	.76***	.09	8.59
부모참여 → 여가참여	.86***	.72***	.11	8.19
부모참여 → 인지발달	.15***	.48***	.03	5.09
사회적지지 → 인지발달	.01	.02	.02	.29

*** $p < .001$

지는 부모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어머니의 부모참여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정적으로 예측하지만,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χ^2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한 기본 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Delta\chi^2_{df=1}=0.01,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그림 2 참조).

최종모형에서 부모참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¹⁾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부모참여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2.84, p<.01$). 즉,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부모참여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에서 부모참여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 교육 및 여가참여도가 높고, 유아의 인지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참여를 높인다는 결과는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혹은 조언, 도움 등은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ottlieb, 1983)는 것을 입증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용한 시간, 정보 등과 같은 자원도 부족하다. 저소득층 어머니가 친구나 친척, 민간기관 등과 같은 주요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물리적, 심리적 지지 및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고 부모로서의 효능감 및 긍정적 양육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요인(전춘애, 박성연, 1998)이라는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면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어머니의 효능감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정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Snowdon et al., 1994),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며(Cutrona & Troutman, 1986), 바람직한 양육행동 특성을 많이 보였다(김민경, 김경은, 2009; Crockenberg & McCluskey, 1986)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용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부모들의 사회적 지

1) Sobel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지망을 확충시킬 수 있는 민간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우,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저소득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층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사회적 지지를 확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부모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모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Waander et al., 2007). 이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신념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언어발달이나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avis-Kean, 2005; Raviv, Kessenich, & Morrison, 2005)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인지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언어적, 문해적 자극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지지(민감성)를 통해 자녀의 인지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stry et al.,

2008). 이는 저소득계층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인지발달을 긍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지지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사회적지지는 부모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인지발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의 인지발달에 있어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 교육 및 여가에의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 태어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입학 시기에 인지발달의 주요한 척도인 언어능력을 측정해본 결과, 저소득층에서 중류계층의 아동들이 고소득층 아동들에 비해 5개월정도 언어능력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shbrook & Waldfogel, 2011).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이 더딘 이유는 유아의 가정환경(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느냐 등), 소득 및 부모의 교육정도와 같은 환경적 차이, 어머니의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가족크기와 같은 요인에서 유발된다(Washbrook & Waldfogel, 2011).

유아의 가정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한부모, 십대부모, 낮은 소득 등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기도 하지만, 시간과 돈의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인 불안감, 부부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에의 소홀 등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부모들이 양육에 접근성이 높은가,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등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돈, 시간, 자원에 쪼들려 있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덜 민감한 양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위협에 놓인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융통성 있는 아동양육이 어렵다는 사실은 저소득층 부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Alakeson, 2011).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가정의 아동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Waldfoegel & Washbrook, 2010). 어린 시기의 발달상의 차이는 이후의 인지발달 및 성취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Najman et al., 2004)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부모에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 놀이 활동, 여가활동 등이 유아의 인지발달수준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결핍된 저소득층 부모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및 교육,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부분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들의 근무시간의 융통성을 높여주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부모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기는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부터의 지적 자극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이나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 등이 유아기에 시작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지원책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유아기의 초기출발점을 맞추기 위한 인지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높은 질의 유아 교육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는 가정환경의 결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Vandell et al., 2010)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부모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저소득층 부모의 질 높은 양육, 교육활동,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저소득층 3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소득층 유아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아기와는 인지발달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시기에 해당되는 3세아가 보이는 인지능력과 5세아의 인지능력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각 연령별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타당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참여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양육, 교육, 여가활동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부모참여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저소득층내에서도 인구학적 변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결혼상태, 어머니가 첫아이를 가진 연령 등과 같은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누적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부모참여,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개별적 혹은 누적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경숙, 공진희, 이민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민경, 김경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 (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진화, 임원신, 김경은 (2010). 저소득층 부모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의 질이 가정 중심 유아교육의 부모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19(5), 761-774.
- 전춘애, 박성연 (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Ahmeduzzaman, M., & Roopnarine, J. (1992). Sociodemographic factors, functioning style, social support, and fathers' involvement with preschoolers in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9-707.
- Alakeson, V. (2011). *Childcare: failing to meet the needs of working parents*. Resolution Foundation.
- Barnard, W. M. (2004). Parent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educational attainment.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26(1), 39-62.
- Bornstein, M. H.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2nd ed., pp.3-44). Mahwah, NJ: Erlbaum.
- Carey, S. (1978). The child as word learner. In M. Halle, J. Bresnan, & G. A. Miller (Eds.), *Linguistic theory and psychological reality* (pp.264-293). Cambridge, MA: MIT Press.
- Castro, D. C., Bryant, D. M., Peisner-Feinberg, E. S., & Skinner, M. L. (2004). Parent

- involvement in Head Start programs: the role of parent, teacher and classroom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413-430.
- Chi, M., & Koeske, R. (1983). Network representation of a child's dinosaur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9-39.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rockenberg, S., & McCluskey, M. (1986). Change in maternal behavior during the baby's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7, 746-753.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294 - 304.
- Epstein, J. L. (1995). School, family, community partnerships: Caring for the children we share. *Phi Delta Kappan*, 76, 701-712.
- Fantuzzo, J., McWayne, C., Perry, M. A., & Childs, S. (2004). Multiple dimensions of family involvement and their relations to behavioral and learning competencies for urban, low-income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33, 467-480.
- Fantuzzo, J., Tighe, E., & Childs, S. (2000). 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A multivariate assessment of family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2), 367-376.
- Geary, D. C. (2006). Development of mathematical understanding. In W. Damon and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6th ed. Hoboken, NJ: Wiley.
- Gelman, S. A. (2006). Early conceptual development. In K. McCartney & D. Philips. (Eds.), *Blackwell handbook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p.149-166). Malden, MA: Blackwell.
- Gelman, S. A., & Kalish, C. W. (2006). Conceptual development. In D. Kuhn & R.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pp.687-733). New York: Wiley.
- Goldfield, B. A. & Reznick, J. S. (1990). Early lexical acquisition: rate, content, and the vocabulary spurt.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171-184.
-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Howlin, P., & Rutter, M. (1987). The consequences of language delay for other aspects of development. In W. Yule & M. Rutter (Eds.),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pp.271-294). Oxford, England: MacKeith.
- Kail, R. V. (2007).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4th. Ed. Prentice Hall: New Jersey
- Klebanov, P. K., Brooks-Gunn, J., & Duncan, G. J. (1994). Does neighborhood and family poverty

- affect mothers' parenting,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6, 441-455.
- Lugo-Gil, J. & Tamis-LeMonda, C. S. (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Link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 1065-1085.
- McWayne, C., Campos, R., & Owsianik, M. (2008). A multidimensional, multilevel examination of mother and father involvement among culturally diverse Head Start famil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 551-573.
- Mistry, R. S., Biesanz, J. C., Chien, N., Howes, C. & Benner, A.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193-212.
- Najman, J. M., Aird, R. L., Bor, W., O'Callaghan, M. J., Williams, G. M., & Shuttlesworth, G. J. (2004). The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nd emotional health. *Social Science Medicine*, 58, 1147-1158.
- Piaget, J. (1970). Piaget's theory.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Raviv, T., Kessenich, M., & Morrison, F. J. (2004). A mediational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ree-year-old language abilities: the role of parenting fact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528-547.
- Robert, E. L., & Emily, J. K. (2001). A longitudinal predictive validity investigation of the SBFE and K-ABC with at risk childre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9, 334-349.
- Rogoff, B.(2003).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ntos, L. M., Santos, D. N., Bastos, A. C. S. Assis, A. M. O., Prado, M. S., & Barreto, M. L. (2008). Determinants of early cognitive development: hierarchical analysis of a longitudinal study. *Cadernos de Saúde Pública*, 24(2), 427-437.
- Snowdon, A. W., Cameron, S., & Dunham, K. (1994).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coping resource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function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6(3), 63-76.
- Taylor, R. J., Chatters, L. M., Tucker, M. B., & Lewis, E. (1990). Developments in research on Black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93-1014.
- Vandell, D. L., Belsky, J., Burchinal, M., Steinberg, L., Vandergrift, N.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10).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1, 737-756.
- Waanders, C., Mendez, J., & Downer, J. (2007). Parent characteristics, economic stress and

- neighborhood context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619-636.
- Wacharasin, C., Barnard, K. E., & Spieker, S. J. (2003). Factors affecting toddler cognitive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Infants and Young Children*, 16, 175-181.
- Waldfoegel, J. & Washbrook, E. (2010). *Low Income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UK*. The Sutton Trust.
- Washbrook, E. & Waldfoegel, J. (2011). *On your marks: Measuring the school readiness of children in low-to-middle income families*. Resolution Foundation.
- Yamamoto, Y., Holloway, S., & Suzuki, S. (2006). Maternal involvement in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in Japan: Relation to parenting beliefs and socioeconomic statu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332-346.

1차원고접수 : 2012. 1. 12

수정원고접수 : 2012. 2. 21

최종게재결정 : 2012. 2. 29

Maternal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Their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Kim, Kyoung-E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erceived maternal social support and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in low income families and whether these relationships are mediated by parental involv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of Index Studies for Korean Child and Adolescent's Development of 2009.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maternal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educational play, leisure activities and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educational play, and leisure activit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The levels of perceived maternal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early cognitive development as mediated by maternal involvement, such as the quality of care, cognitive stimulation, and playful leisure activities.

Key words : maternal perceived social support, parental involvemen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low income families, mediating effect